

사건의 별자리

Crossings_김아영 개인전
6. 7-7. 8
갤러리 현대 1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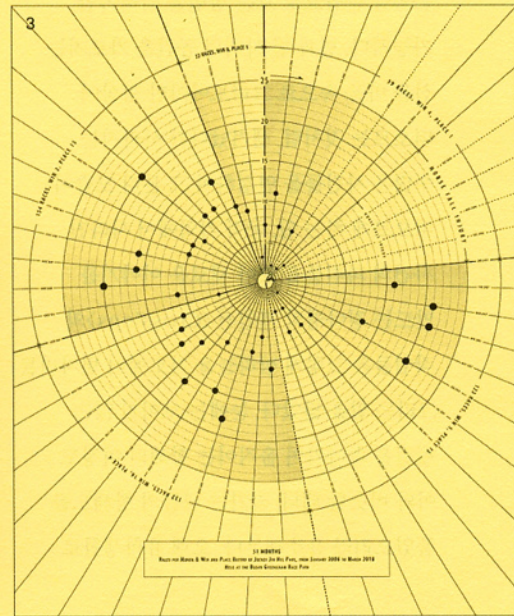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을 무심코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반사적으로 그와 나 사이의 접점이 될 무언가를 찾게 되곤 한다. 사는 곳, 다녔던 학교, 함께 아는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까지. 사람이든 공간이든 사물이든 어떤 공통의 매개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와 나의 교집합이 팔짱 낀 모양으로 서로를 연결해 줄 때, 그렇게 세상에서 나의 반경은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다. 세상에 존재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그들 각자가 살아가는 시간을 곱한 만큼 사건들이 생겨난다. 그 중 어떤 사건은 기억되고 기록되지만 대다수의 것들은 기록과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역사라는 공적 기억으로 남는 것은 소수에만 해당되는 행운이다.

그 세상 사람들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별들 속에서 별자리를 보는 것은 큰곰을 큰곰으로 보는 방법을 익혀야만 가능하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선을 마음 속으로 그려보아야만 형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연결하여 그 본디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일, 공적 기억에서 사라진 사건의 파편들을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김아영의 개인전 <Crossings>의 작업들은 그렇게 밤하늘을 가로질러 별자리를 그리는 일을 닮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뱃길을 찾아가며 움직이는 항해의 여정도 이와 비슷할 테니, 작가는 나름의 항해도를 품었으리라 유추해본다. 오랜 유학생화로

한국과 외국을 오가면서 "어느 한 곳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 자신의 위치를 더듬어 보기 위해 서구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작가는 한순간 좌표의 축을 부산에 두었다. 바다를 면하고 있어서 국외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장소였던 이유이다. 전시의 대부분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도시의 이야기 Tales of a City>시리즈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되었다. 사건들은 바다를 건너온 '문물'들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게 먼 과거의 일들은 아니고, 세상을 뒤흔들 만큼 커다란 일도 아니다. 천천히 그 뒷모습을 살펴야 사건의 전체 모습이 떠오르는, 그렇게 크지도 또 작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와 크기의 사건들이 공동의 역사와 개인의 삶이 중첩되는 순간들로 조망되고 있다.

전시장 1층에 설치된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조용필이 부른 동명의 노래가 작게 흐르는 3채널 영상이다. 가운데 놓인 모니터는 미래에의 기대와 낙관으로 점철되어 있던 88 서울올림픽을 둘러싼 자료화면들이 천천히 뒤로 감겨서 돌아가고 있고, 그 양 쪽으로 80년대 말 부산항에서 밀수품을 배달하던 한 소년의 모습이 재현된다. 자전거를 타고 산복도로를 달리는 소년의 별일 없어 보이는 일상의 장면이 오른쪽에, 그가 빨대 끝을 라이터로 지진 것에 필로폰을 숨겨 자전거 의자 아래 파이프에 밀어 넣거나,

밀폐 용기에 담은 후 부표에 매달아 던지고, 또는 밀치 상자 바닥에 숨겨 포장하거나 하는 다양한 밀수의 방법들이 왼쪽 화면에 나열된다. 나지막이 흐르는 노래의 리듬과 함께 세 영상은 각각의 궤도를 덩덤히 그리면서, 그다지 뚜렷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동시에 아련한 느낌을 자아낸다. '마약'과 같이 영화나 신문에 등장할 것 같은 소품이 등장하는데도, 범죄의 행위가 빨대나 반찬 통 같은 소소한 사물로 위장되는 모습이, 마치 우유나 신문을 배달하는 것 같은 소년의 외양과 함께 우리에게도 흔한 일상인 것만 같다. 영상은 기시감과 낯설음이 교차하여 발생하는 감각의 변주에 기댄다. 제법 큰 사건들이 비극이나 희극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우리 삶 가까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듯도 하다. 부산항을 노래하는 소리 너머로 등대의 눈이 전시장을 둥그렇게 훑으며 돌아간다. 빛의 좌표는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쯤에 위치한다는 거문도이다. 영상 설치 작품 <등대 1905>는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영국 해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잠시 거문도를 점령했던 사건을 소재로 다룬 <P.H Express>시리즈의 일부이다. P.H는 Port Hamilton의 약자로 점령 영국인들이 거문도를 칭하던 이름이라 한다. 한국 땅의 일부가 잠시 영국에 점령되었다는 만만치 않은 역사는 섬 처녀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영국 선원의 전설 같은 이야기와 아홉 개의 묘지로만 남았다. 이야기된 기억들과 어렴풋한



1. 김아영. 모든 북극성 part 1, 2-어느 도시 이야기 중에서. 단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각 6' 1", 8' 56". 2012
 2. 등대 1905.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3. 김아영. 모든 북극성 part 1, 2-어느 도시 이야기 중에서. 디지털 프린트. 80x60cm. 2011

혼적으로만 남은 실제들은 픽션의 영역으로 편집되는 것일까.

전시장 2층에는 또 다른 부산의 이야기가 있다.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 온 한 마리 말의 역사가 한 여자 기수의 이야기와 조우한다.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영상 작품 <모든 북극성 I> 과 <모든 북극성 II>는 각각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의 개인사와 박진희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기수의 삶을 검색하고 있다. 북극성은 어미의 뱃속에서 태평양을 건너와 한국에서 자란 후 부산 경마장에 소속된 경주마이다. '탐사꾼 (미스터 프로스펙터)'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마의 수많은 자식 중의 하나였고 그 조부는 이름난 경주마였던 '타고난 춤꾼 (네이티브 댄서)'이었다. 그리고 그 윗대의 조상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한다. 대서양, 태평양을 횡단하는 '이주 노동자'의 역사를 몸매 새긴 이 경주마는 부산 경마장 유일의 여자 기수 박진희를 만나 한때 5연승을 기록하며 주목받는다. 승승장구하던 여기수 박진희의 주변에 어느 순간 일본인 여기수 히토미가 등장한다. 이 사건이 박진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연관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몇 년 후 또렷한 얼굴과 눈매를 가진 서른 살의 기수 박진희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가 비정하게 느껴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어떤 신문은 자결이라고 표현했다. 모든 것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녀가

자살한 날,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은 박진희를 대신하여 히토미는 북극성에 올라탔고,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던 북극성은 1위를 차지했다. '마치 애도하기라도 하듯'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하고 싶게 만드는 구절이다. 이토록 픽션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상은 자료 화면과 사진, 그리고 신문의 헤드라인 등 사실적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과 관계없이 배열된 언어들 그리고 기록 영상이나 다큐멘터리와 유사하나 의도가 배제된 덩그러니 영상의 흐름이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의 개입에 거리를 만들면서도 또 그것이 끌고 가는 리듬에 귀를 열어 몰입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기실 이 전시에 눈길이 간 것은 나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이라는 작품 배경 때문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살았고, 또 그에 필적할 만한 시간 동안 떠나있었던 도시. 작가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도시의 풍경은 엉겁, 하단, 괴정, 금정과 같이 지금은 어느덧 이국의 이름 같이 울리는 옛 동네의 지명들처럼 친숙하고면서도 낯설다. 그리고보니 내게도 마약과 연계되었다는 소문이 어렴풋이 들리던 친구의 아버지가 있었다. 나의 아버지도 매일 새벽의 어시장에 다녀오셨고, 같은 반에는 선원 아버지를 둔 친구들이 한둘은 있었다. 어린 우리가 수면 위의 일상을 보내는 동안, 바다에 가까이 있었던 부모들의 삶은, 부표에 매달아 바다로 던져진 물건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던져져 다시 돌아오지 못한 호흡들의 근거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를 스쳐 갔으나 미처 내가 알지 못하던 세상의 수많은 거대 사건들이 내 근거리에 존재했다는 자각만으로 무료하던 세상이 재미있어진다. 재구성된 과거의 사건들이 꾸며낸 이야기만큼 흥미진진하고, 또 그 이야기가 가까운 곳에 실제했던 사실이라는 소문은 '알고 보니 아는 사람'이라는 흔한 우연을 만난 것처럼 잠깐의 호들갑스런 반가움을 불러온다. 요지는 거대한 사건의 물결이 개인의 삶에 핏줄처럼 침투한다는 것이다. '근대화'라는 수많은 겹으로 이뤄진 사건들의 총체를 우리가 편리하게 칭해 한 단어로 부르고 있지만 그 실제 없는 실재는 각각의 삶에 향로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각각 발견한 두 조각 퍼즐이 서로 들어맞거나, 사건의 발생 순서가 만드는 차갑고 뜨거운 온도 차가 느껴지는 순간의 공감각 같은 경험. 내 경우엔 이런 것이었다. KTX가 아직 없던 시절에 부산행 기차의 종착 즈음에는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울렸다. 플랫폼에 도착한 기차가 치익 소리를 내며 문을 여는 순간 역과 평행한 부두의 바다냄새가 코끝에 밀려왔다. 이토록 기막히게 연출된 일상이 없고 일상만큼 기막힌 사건이 없었다. 전시장에 머무는 잠시 동안, 플랫폼에 서있는 사소한 나와 바다냄새 나는 기차역으로 포괄한 세계가 서로 교차하는 보이지 않는 순간 같은. 그런 공감각이 느껴졌다. ㊦